

동행, 평화와 번영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The 1st Mekong-Republic of KOREA Summit

2019년 11월 25-27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엠블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엠블렘의 기본 형태는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서로 손을 맞잡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엠블렘의 다양한 색상은 한국과 아세안의 조화와 협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행, 평화와 번영”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슬로건

2019년 특별정상회의 공식 슬로건은 한국 및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아세안 관계의 비전을 슬로건에 잘 담아낸 응모작을 공식 슬로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11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과 기업인들까지 약 1만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정상회의와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행사명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기간
2019년 11월 25일(월)~26일(화) / 11월 27일(수)

장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2019asean-roksummit.kr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은 2009년(제주)과 2014년(부산) 두 차례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세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올해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중 유일하게 본국에서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대 아세안 협력의지에 대해 아세안이 신뢰와 지지를 보여준 결과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이래 장관급으로 이루어져 온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내에서도 고속 성장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성장과 가능성의 상징 아세안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아세안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 국제통화기금(IMF) (2018년 기준)



인구
약 6억 5,429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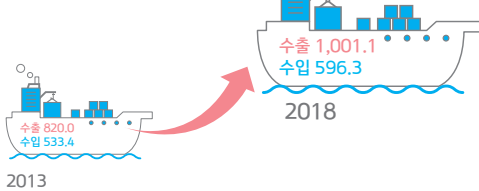
평균 경제성장률
5%



전체 GDP
약 2조 9863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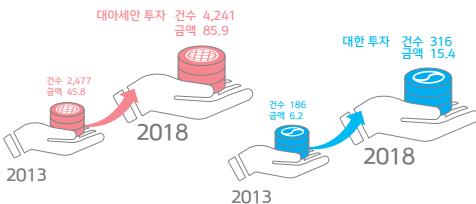
교역: 1,597.4억불

단위: 억불 /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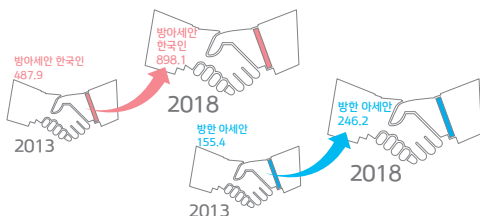
투자: 대아세안 투자 85.9억불

단위: 억불, 신고기준 /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18년 기준)



인적교류: 양측간 교류인원은 2018년 기준 약 1,144만명

단위: 만명 / 출처: 한국관광공사



아세안(ASEAN)이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자로서 국제 정세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입니다.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상이한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제도,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공식 출범하여 정치적으로 단결하며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젊은 노동인구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통합을 향해가는 아세안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약 1,600 억불(수출 약 1,000억불, 수입 약 600 억불) 규모로서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지역입니다.

아세안은 한국 국민의 제1위 방문 지역으로서 2018년 상호방문객이 1,100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내 한류 및 한국어 학습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7년 아세안문화원이 개설되어 문화적 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역내 평화롭고 안전한 안보환경 구축은 물론 재난관리, 해양안보, 테러리즘 대응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력하는 등 한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아세안 성장의 주역 메콩 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 5개국을 관통하는 메콩강은 총 길이 4,900 km에 이르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강입니다. 메콩유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연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아세안의 고속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과 메콩 5개국

한국은 메콩 지역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보건의료, 농촌개발, 인프라,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콩지역 개발을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한국은 약 33억불 규모(2017년 누계기준)의 ODA를 메콩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지원했으며, 이는 한국의 전체 양자 ODA의 약 21%에 해당합니다.

한·메콩 교역액은 2018년 기준 845억불로서 201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양측 간 연간 교류인원도 약 700 만명으로서 2011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 경험을 메콩 국가들과 적극 공유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이란 아세안과 인도 등 잠재력이 큰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 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입니다.

대외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 속에서 외교, 경제협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들과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9월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료하여 신남방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세안 회원국

출처:
지도 - 아세안 사무국, 한·아세안 센터 [2018 한·아세안 통계집],
한·아세안 센터 홈페이지 내 아세안 소개 참조
면적 - 아세안 사무국
인구 - (UN, 2018)
언어 - 아세안 사무국

수도
 면적(km²)
 인구(만명) 추정치
 언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5,770km² (경기도 0.5배)
 43 만명
 말레이어, 영어



캄보디아

프놈펜
 181,040km² (한반도 0.8배)
 1,624 만명
 크메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10,931km² (한반도 9배)
 2억 6,679 만명
 인도네시아어



라오스

비엔티안
 236,800km² (한반도 1.1배)
 696 만명
 라오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30,800km² (한반도 1.5배)
 3,204 만명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미얀마

네피도
 676,590km² (한반도 3배)
 5,386 만명
 미얀마어



필리핀

마닐라
 300,000km² (한반도 1.3배)
 1억 651만명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



싱가포르

싱가포르
 719km² (서울시 1.2배)
 579 만명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태국

방콕
 513,120km² (한반도 2.3배)
 6,918 만명
 태국어



베트남

하노이
 330,967km² (한반도 1.5배)
 9,649 만명
 베트남어



개최도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대한민국의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우리나라 제일의 항구도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도시이며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가 넘치는 열정과 역동성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MICE (국제회의 및 관광 산업) 중심 도시로 2002년 아시안게임, 2005년 APEC 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4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그동안 축적한 국제행사 성공개최 노하우와 부산시민의 역량을 모아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에 일조하며 신남방정책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교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한·아세안이 하나되는 부대행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계기, 약 30개의 부대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기간 전 한·아세안 인사 및 청년들을 싣고 서울, 부산, 광주 등을 여행하는 ‘한·아세안 열차 : 함께하는 미래’ 행사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경남 창원에서는 ‘전야공연: 아세안 판타지아’가 개최되어 한국과 아세안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합동 공연을 펼치며 두 지역의 우호와 협력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서 ‘한·아세안 비즈니스 & 스타트업 엑스포’,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한·아세안 공공행정혁신 전시회’ 및 ‘2019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메콩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서,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 ‘메콩바자: 수공예품과 디자인상품’도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2019asean-roksummit.kr)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 7층
www.2019asean-roksummit.kr

